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여수시청 한곳으로 통합해야” vs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여수시 7개 자생시민단체 “시민 뜻에 따라 별관 증축하라”

여수시민협 “정주여건 개선 통한 인구유출 문제해결 우선”

8개로 분산된 전남 여수시청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시청 본 청사에 별관을 증축하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여수시협의회 등 여수시자생단체연합회소속 7개 단체 회원들은 12일 여수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 별관 증축추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8개로 나뉜 여수시청사로 시민은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다”면서 “3려가 통합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 구 여수와 구 여천으로 나뉜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에 따라 시와 합동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본 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소수 시의원의 결정이 아닌 대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수시의 발전 시민화합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는 여서동과 학동 등 8개로 나뉜 시청사를 모으기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통합청사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은 통합청사 건립과 별관 증축 등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시민 의견조사에서 본 청사 별관증축에 대해 67%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400억 원 상당의 예산

을 투입해 본청사내 별관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는 공유재산 의견안을 보류했으며, 별관 증축 실시설계 예산은 삭감했다.

반면 여수시민협은 줄곧 시청사내 별관 신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출을 막는 정주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3월 1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여수시청 별관신축 관련 안건이 상임위서 보류됐고, 권오봉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 보류와 전액삭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수시청 별관신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여수시청 별관신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뻥뻥 사업추진에 시민들은 떠나고 공무원만 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여수시협의회 등 여수시자생단체연합회소속 7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여수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 별관 증축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시민협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축소도시로 판정돼 대책이 시급한 여수시는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여수시청 별관신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청 별관 신축이 인구 유출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정

책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새판짜기’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전남은 누구

‘최다선’ 이계호 불출마 유력

서삼석·송갑석 거취 ‘주목’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총사퇴로 새판짜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 중 최고위원에 누가 도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출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들 중 출마가 예상된다.

현재 재선 이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총 5명이다. 3선으로 광주·전남지역 최다선인 이계호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출마가 유력하게 보였으나 사실상 불출마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여서 최고위원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재선 그룹 중에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송갑석(광주 서구갑)·신정훈(나주·화순)·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최고위원 도



전이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려다 전북 출신 한병도(전북 익산) 의원과 광주 출신 양항자(광주서구을) 의원이 호남 몫으로 도전하자 출마를 접었다. 송갑석 의원 역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정치의 변방으로 나아가선 안된다”면서 “출마할 사람 있으면 내부 논의해서 밀어줘야 한다. 하지만 없다면 저도 최고위원 도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긴장감 떨어졌다” 유증상자 검사 늦어 가족·지인 감염 잇따라

증상 일주일 지나 코로나19 검사

역학조사 범위 광범위하게 설정

지난 2월·3월 집단감염 이어져

“검사 지연 원인 긴장감 완화”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 수일이 지나 진단검사를 받아 집단 확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지역 확진자 397명 중 기침과 인후통·근육통 등의 유증자는 178명(44%)이다. 이 중 3일에서 7일이 지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는 112명이다.

또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7명의 확진사례도 서울 송파1894번과 일주일전에 광주에서 가족·골프모임 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가족들과 만났다. 또 지인들과 전남 화순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식사를 했다.

송파구 확진자는 몸살 증상이 지난 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일주일일 지난 10일 이뤄졌다.

송파구 확진자의 감염이 확인된 이후 광주 지역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지난 11일과 이날 이틀동안 가족 5명, 지인 2명 등 총 7명이 추가 감염됐다.

광주 감염자 중 3명은 인후통·기침·근육통 등의 증상이 지난 5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한 뒤 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유증상자들이 뒤늦게 검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2월과 3월 광주지역에서는 유증상자들이 코로나19 감염사실을 모르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보험사콜센터 관련 114명, 명절 가족모임으로 23명이 집단감염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집단감염 현상은 교회,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증상자들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해 가족·지인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단검사 지연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긴장감이 완화된 것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있을 때 집에 머물고 즉시 검사 받는다는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감기 증상이 비슷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도 감기 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병의원·약국 등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